

# 라키 “미성숙했지만, 솔로 데뷔 팬 덕분이죠”

데뷔 7년만 솔로 데뷔...1인 기획사  
전곡 프로듀싱 참여...댄스 특기 살려  
“팀 활동하며 1년 공백, 성장통 시기”  
“멤버들 내 행운...故 문빈 가슴에 품어”

비와 동방신기를 좋아하던 엄마에게 예뻐 받기 위해 춤추던 다섯 소년은 자연스럽게 아이돌을 꿈꾸게 됐다. 열두 살의 나이에 연습생이 됐고, 5년의 기다림 끝에 아이돌이 됐다. 데뷔라는 꿈을 이루면 목표에 다다른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7년 만에 팀을 탈퇴했다.

갑피를 잡지 못하던 때를 지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솔로 가수로 데뷔하는 그룹 ‘아스트로’ 출신 라키의 이야기다.

라키는 솔로 데뷔 앨범 ‘라키스트 (ROCKYST)’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2월 팀을 탈퇴하고 9개월 만이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팀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자작곡으로 채운 앨범이다. 안무 창작과 프로듀싱까지 직접 도맡았다. “신기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언젠가 솔로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지 몰랐거든요. 주어진 기회에 잘 해보려고 합니다.”

소속사 설립부터 솔로 데뷔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지만 계획된 건 아니었다. 팀 탈퇴와 동시에 12살 때부터 몸담았던 전 소속사를 나오게 되면서 잠시 쉬어가려고 했다. 팬들이 무대 위로 이끌어 준 덕분에 솔로 데뷔 결심을 먼저 하게 됐다.

“무언가를 기획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키(key)가 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혼자 해보아겠다고 선택했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주일 모르고 9월 전에 노래와 춤을 만들었고, 이제 나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인지 법인인지도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요.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게 와닿았어요. 무작정 시도했어요.”

앨범명부터 타이틀곡 이름까지 라키의 것이라는 게 뚜렷하다. ‘라키스트’는 라키와 아키스트의 합성어다. 솔로 아티스트 라키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의지와 포부가 담겼다. 타이틀곡 ‘럭키 라키(Lucky Rocky)’에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춤을 추는 순간 행운이 찾아온다는 의미와 자신의 이름 라키를 기억해 달라라는 종의적인 메시지가 내포됐다. “첫 앨범이기에 이름을 넣을 수 있지 않나. 기념 아닌 기념을 하고 싶었다”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나오는 게 처음이다 보니 대중에게 한 번이라도 더 언급되고 싶었다”고 했다.

다. ‘럭키 라키’는 그루비한 색소폰과 핑키한 기타 사운드가 특징인 레트로 핑키 팝이다. 중독성 있는 후크와 팀의 메인 댄서였던 라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는 곡이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저는 부드럽지만 진한 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향을 ‘럭키 라키’에 가장 많이 녹여요. 새 출발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쟁쟁한 가수들 사이에서 다른 솔로 가수가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곡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구성이 다채로웠어요. 아티스트가 작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든 곡인데 6번 트랙 ‘날 찾아줘’만 팀 활동할 때 써놓은 곡이에요. 아스트로를 위해 만든 곡이죠. 중간에 1년간의 긴 공백기가 있었는데 ‘팬들을 만나고 싶는데 내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 팬들이 우리를 찾아주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곡이에요. 세상에 내보이고 싶었어요.”

당시 1년의 공백기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꼽을 만큼 중대한 시기였다. 유독 길게 느껴졌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 새벽 6시에 대중목욕탕에 가는 루틴을 만들고, 곡 작업에 열중했다.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죠. 그래도 나아가야 하니까 갈 수 있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찾아보려고 했어요. 텅텅 비어 있는 마음을 채워가면서 좋은 훗날을 위해 시선을 돌렸던 거죠.”

그 시기를 지나며 각종 논란에도 부딪혔다. 팬들이 서운해하는 일들도 찾아졌고, 열애설 이슈도 있었다. 라키는 뒤돌아보며 “미성숙한 행동들로 성장통을 겪었다”고 했다. “방향에서 시작해 불안이 되고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가 됐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나를 치유해 나가면서 발전해 가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팬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공존한다. 결국 돌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도 팬들이기에 앞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려고 한다.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로 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보고 싶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볼 수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팬들도 있더라고요. 각각의 추억의 자리에 제



가 연결고리인 거예요. 이어나가고 싶어요.” 바로 설 수 있게 묵직하게 옆을 지켜준 견제 같은 아스트로 멤버들이다. 탈퇴 후에 또 사이는 여전하다. 1인 기획사 개소식에도 촬영 스케줄이 있던 차은우를 제외하고 모두 모여 축하해 줬다. “군대에 있는 MJ 형도 휴가를 내고 왔어요. 은우 형은 화환으로 왔고요. 같이 재밌게 놀고 제가 축하 무대 같은 걸 했거든요. 댄서들과 함께 이번 앨범 무대들을 보여줬더니 ‘너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멤버들은 제일 큰 행운이라면 행운이예요. 인연이죠. 운명처럼 그 시기에 만나서 오랜 시간 함께 해왔잖아요. 첫 만남 때는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할 걸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연습생을 잘릴 것 같은지 예상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길게 갈 인연이란 걸 알았다면 더 눈에 담으면서 자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그만큼 동고동락한 시간이 많았어요.”

라키는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문득 자연스럽게 해 문빈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문빈과는 각각 12살, 13살이던 때 전 소속사에서 연습생으로 만나 오랜 세월을 함께해 더 각별하다. 지난 4월 갑자기 문빈이 세상을 떠나면서 라키는 마음 한구석이 쉽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는 “빈이 형이 간 이후

로 계속 차고 있었다”며 생전 문빈이 끼던 반지로 만든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형과 너무 추억이 많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만나 항상 ‘우리 언제 안 볼까. 너무 지겹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형이 가고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에 품고 다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개소식 때도 형이 없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멤버들끼리 형 이야기도 했어요. 아아 형이 봤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탈퇴부터 이별, 새 출발을 올 한 해에 모두 겪은 그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대하겠다”고 했다. “회사 이름이 원파인데이(Onefineday)인데요. ‘어느 멋진 날’이라는 뜻이예요. 앞으로 멋진 날이 되길 원하는 것도 있고 돌아보면 오늘도 결국엔 어느 멋진 날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지었어요. 지난해 추억이 되고 소중하게 남으니까 행복하고 재밌게 살고 싶어요.”

“앨범 만족도는 100%입니다. 주어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낄 새도 없어요. 앨범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은 잘 써야 하는 거 같은 부수적으로 사무적인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표는 전혀 없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안 댄 곳이 없는데 상황이 잘 마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 되더라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뉴스스



## 라이즈 승한·베몬 아현 연이은 아이돌 ‘빈자리’

아이돌 그룹들의 완전체 그림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사생활 이슈, 학교폭력(학폭) 논란, 건강 문제 등 이유로 각양각색이다. 데뷔 전부터 팬덤을 구축하는 추세에 팀의 빈자리가 생기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얻기 어렵기도 하다.

최근 이런 문제가 SM·YG엔터테인먼트 두 대형 기획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신인 그룹에게 생겼다. SM이 그룹 ‘NCT’ 이후 7년 만에 론칭한 보이그룹 ‘라이즈’는 데뷔 전부터 멤버 승한이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이와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 유포돼 잡음이 일었다. 지난 9월 데뷔작이 밀리언셀러가 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무마되는 듯했으나, 최근 승한의 사생활 이슈가 또 터지면서 일부 팬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승한이 과거 길에서 흡연을 하거나 타 보이그룹 멤버와 라이브 방송 도중 겸손한 발언을 한 영상 등이 유포되면서 이미지에 타격이 간 것이다. 결국 SM은 승한의 무기한 활동 중단 강수를 두고 팀을 개편하기로 했다.

YG는 데뷔 전부터 ‘센터’를 잃었다. 그룹 ‘블랙핑크’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아현이 데뷔 직전 하차한 것이다. YG는 앞서 자체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멤버들을 공개하고 국내외 팬덤을 구축했는데, 그중 아현이 ‘인들 제니’ ‘확신의 센터’로 불리는 핵심 멤버였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 아현의 탈퇴설이 돌았지만 YG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데뷔 12일 전에 아현의 건강을 이유로 하차를 발표했다.

소속사가 끝까지 리스크를 안고 가다가 데뷔 직전이나 직후에 틀을 보이는 건 이유가 있다. SM과 YG 같은 주요 엔터 상장사들의 신인 론칭은 앞으로의 성적표를 가늠하는 것이기에 선부터 결정을 할 수 없다. 업계는 두 회사가 탈퇴가 아닌 ‘무기한 활동 중단’ ‘휴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그런 이유로 보고 있다. 특히 YG는 “아현이 충분히 회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복귀 가능성을 요구한 게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YG를 요구한 가요관계자 A씨는 “이슈 있는 멤버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 초강수를 두기 전에는 최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완전체 그림이 깨지면 따라오는 리스크는 막대하다. 아이돌 그룹의 데뷔 과정 자체가 다수 인원과 각각 멤버들의 특징, 팀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야 한다. A씨는 “소속사에서 처음 기획했던 그룹의 색깔, 그리고 팀과 멤버 개인의 장기적 플랜까지 모두 망가지기 때문에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가요관계자 B씨 역시 “금전적인 손해도 무시할 수 없다. 캐스팅부터 연습생 교육비 등 투자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의 멤버가 하차하고 대외적인 리스크를 짊어지는 건 남은 멤버들이다. 그룹 ‘르세라핌’은 학폭 이슈가 있는 멤버가 데뷔 19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면서, 무대 동선과 파트 등을 바꿔야 했다. 여기에 이미 썩어진 부정적 이미지까지 직접 돌파해야 했다. 데뷔 전이라도 이미 대중에게 완전히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면 ‘빈자리’라는 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MBC TV 오디션 ‘소년판타지’로 결성된 그룹 ‘판타지보이즈’는 1위를 차지한 유준원이 데뷔를 앞두고 이탈하면서 음악보다 이슈에 더 집중했다. A씨는 “문제가 터지는 순간부터 해결하는 순간까지 그 과정에 앞에서 지켜보는 멤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데뷔 전에 잘 셋팅된 건강한 마인드가 망가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다.

불안정해진 팬덤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라이즈나 베이비몬스터처럼 데뷔 전부터 팬덤을 모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부터 폭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초기 팬덤을 탄탄하게 굳혀야 하는 시기에 멤버 이탈이 생기면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르세라핌은 멤버 탈퇴 이후 음악으로 대중 인기를 높이고, 멤버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사생활 등으로 빠르게 안정 궤도에 오른 사례다.



## ‘서울의 봄’, 개봉 4일째 누적관객 100만명 넘어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이 개봉 4일째 누적관객 100만명을 넘겼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통합전산망·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누적 관객 수 100만918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봄’은 올해 한국 영화 개봉작 중 ‘범죄도시3’,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같은 속도로 100만 명을 돌파한 작품이 됐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렸다.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김성규 등 스타 배우들의 호연으로 호평을 듣고 있다.

## ‘밀수’ 5관왕...청룡 30년 김혜수 마지막 인사

### “김혜수가 곧 청룡영화상”

김혜수 주연 ‘밀수’(감독 류승완)가 청룡영화상 주인공이 됐다. 밀수는 작품상 등 총 5관왕에 올랐으며, 김혜수는 30년 만에 청룡영화상 MC 자리를 내려놓았다. 밀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4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안았다. 류승완 감독과 부인인 제작사 외유내강 강혜정 대표, 조성민 부사장, 주연인 조인성, 박정민, 고민시 등이 무대에 올라 수상했다. 조인성은 조연상과 인기스타상, 고민시는 신인상을 받았다. 가수 장기하가 밀수로 음악상까지 받으며 5관왕을 차지했다.

주연상은 이병헌과 정유미에게 돌아갔다. 각각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임태화)와 ‘짐’(감독 유재선)에서 열연했다. 이병헌은 2016년 ‘내부자들’(감독 우민호)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은 뒤 두 번째다.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고 싶은 상이 청룡영화상이다. 내 손에 트로피가 들려있는 걸 보니 정말 공정한 시상식”이라면서 “송강호 형, 농담이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청룡영화상이 권위있는 시상식이 된 것은 김혜수씨가 30년 간 진행한 덕분이다. 정말 수고했다”며 “사

실 다음 달에 둘째가 나온다. 태명은 ‘버디’라며 ‘집에서 지켜보고 있을 이민정씨, (아들) 이준후, 버디와 영광을 함께 하겠다. 나이스 버디!”라고 외쳤다.

이날 김혜수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 1993년 14회 때부터 30년 간 함께 하며 ‘청룡의 여인’으로 불렸다. 정우성이 등장, 청룡영화상이 새겨진 트로피를 전달했다. 정우성은 “오랜 연인을 떠나보내는 심정과 같다”며 “김혜수씨가 영화인들에게 준 응원과 위로 덕분에 지금의 청룡영화상이 있을 수 있었다. 청룡영화상이 곧 김혜수이고, 김혜수가 곧 청룡영화상인 시간이었다”고 돌아왔다. 김혜수는 “서른 번의 청룡영화상을 함께 하면서 진정한 영화인들의 연대를 알게 됐다. 이 무대에서 배우들과 영화 관계자들에 관한 존경심을 배울 수 있었다”며 “배우 김혜수 서사에 청룡영화상이 있었서 감사하다”고 했다.

### ◇제44회 청룡영화상 수상자(작)

▲최우수작품상=‘밀수’ ▲감독상=임태화(콘크리트 유토피아) ▲남우주연상=이병헌(콘크리트 유토피아) ▲여우주연상=정유미(짐) ▲남우조연상=조인성(밀수) ▲여우조연상=전



여빈(거미집) ▲신인남우상=홍사빈(화란) ▲신인여우상=고민시(밀수) ▲청정원 인기스타상=송중기·조인성·김선호·박보영 ▲신인감독상=안태진(올빼미) ▲최다관객상=‘범죄도시3’ ▲음악상=장기하(밀수) ▲편집상=김선민(올빼미) ▲기술상=진중현(더 문) ▲촬영조명상=김태경·홍승철(올빼미) ▲미술상=정이진(거미집) ▲각본상=정주리(다음 소희) ▲청정원 단편영화상=유재선(과화만사상)